

호반그룹, LS지분 땅따먹기 매입 특허소송·분쟁대응 전략 가능성

호반 “단순 투자” 선 그었지만
‘LS 경영개입’ 위한 포석 우려

대한전선의 모 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 회사 LS그룹(LS) 지분을 매입하면서 경영권 분쟁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호반그룹(호반)측은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기술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LS의 경영안정성을 흔들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은 최근 LS의 지분을 약 3% 미만으로 매입했다. 호반이 확보한 지분은 5% 미만이기 때문에 공시 대상은 아니다. 호반측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지분 매입은 대한전선과 LS전선의 특허침해 소송,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 등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법상 특정기업의 지분을 3% 이상 확보하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 ▲주주제안 ▲회계장부 열람권 ▲이사·감사 해임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이사 총실의 무범위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호반이 추가 지분 확보 시 소수 지분만으로 LS그룹에 대한 압박

이 가능하다.

호반의 뜬금없는 지분 매입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호반건설은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 지분 17.43%를 6839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호반 측은 ‘단순 투자’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진칼이 사모투자펀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경영권 개입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LS의 가족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는 32.1%다. 가문별로는 구태회(家) 11.1%, 구평회가 15.3%, 구두회가 5.6%로 절대적인 지배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호반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12월 20일) 전 LS 지분을 3% 매입했을 경우 오는 27일 LS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난 1월 말까지 LS 주주명부에 호반그룹 계열사가 없던 것으로 파악돼 이번 만큼은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LS가 적극 대응에 나서는 시점을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해저케이블 설계도 유출 관련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직후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용·장거리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기술과 관련된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담긴 레이

아웃을 부정하게 입수했다는 의혹을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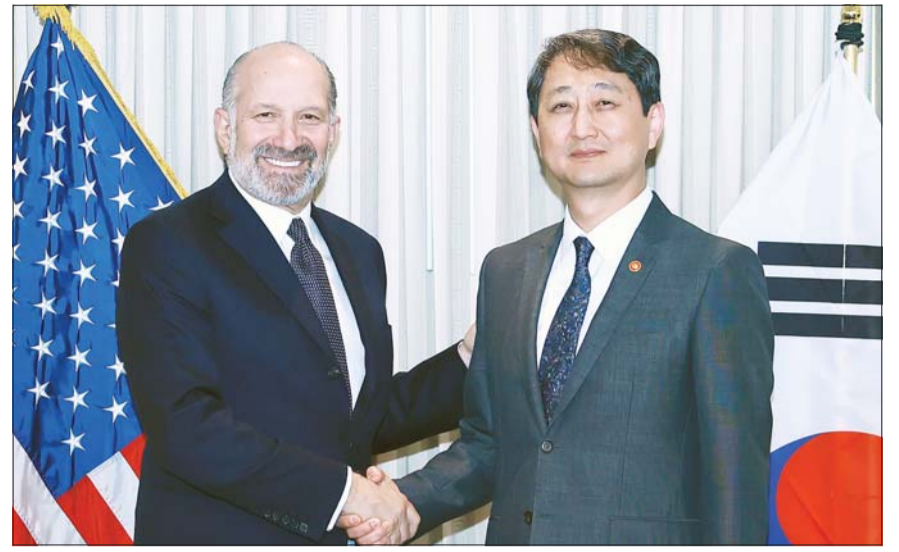
LS전선의 강원도 동해 해저케이블 1~4공장을 설계한 가운데 LS전선의 충남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를 맡으며 주요 설계 노하우가 유출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는 전력 배전에 사용되는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권을 두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이는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해저케이블 수사 결과 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 장재혁 연구원은 “호반그룹의 단순 재무적 투자 또는 특허소송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며 “LS그룹 경영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LS 고위 관계자는 “전선업계가 호황인 것은 맞지만 경쟁사 지분 매입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경영권 개입을 통해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상호관세를 포함한 한-미 간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히 논의했다. /산업부

“美 상무부, 상호관세 결정 ‘한국에 우호적 고려’ 언급”

안덕근 산업장관, 방미성과

“미국 관심은 미국산 구매, 미국에 투자해달라는 것”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 시 상무부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일~21일(미국 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 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제로 수준 한미 실질관세 설명
러트닉 美 상무부 관도 이해해”
“미국산 구매·투자, 美 관심사”

이 관계자는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상무장관을 3주만에 두번째 만나면서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됐고, 대한항공의 보잉사와 GE와의 구매계약 체결식에 러트닉 장관이 직접 참석해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한미 장관회담에서 현안에 대해 얘기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에게 대해 우호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러트닉 상무장관)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측은 양국 실제 실행관세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설명한대로 양국 간 한미 FTA에 따라 실질 관세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며 “잘못 알려졌거나 해소 안된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측은 그것에 대해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방미 중 느꼈던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에 대해서는 “미국산을 구매해달라는 것과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예고한 대로 내달 2일 부과될 것으로 보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질문에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며 “상호관세가 말 그대로 각 나라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어, 대미 수출 등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부과율이 얼마일지, 경쟁국이 얼마를 맞느냐(관세부과율)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면 문제다”고 덧붙였다.

대미 협상시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님 말씀처럼, 단판승부가 아니다”며 “상호관세 부과 후 그걸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라며 “(한덕수)총리가 복귀했는데, 주미대사도 하셨고 통상전문가라 협상하는데 저희한테(리더십 부재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감도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양국 장관은 이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음날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대한상의,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부정적’

BSI 전분기보다 18p 오른 79 집계
대기업 71, 중견기업 83, 중기 79

미국발 관세전쟁과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제조기업들의 올해 2분기 체감경기 지수 전망치가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1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61) 대비 18포인트(p) 상승한 ‘79’로 집계됐으나 기준치(100)에는 크게 못미쳤다. BSI는 지수가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체감경기를 이전 분기

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71), 중견기업(83), 중소기업(79) 모두 지수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노출도가 높아 관세 등 대외 정책 변화에 민감한 대기업의 체감경기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트럼프정부 관세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철강, 자동차 등 직접 영향권에 있는 업종에서도 2분기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넘지 못했다. 철강(59)의 경우 전방산업 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이 누적된 상황에서 관세 인상, 저가덤핑 등

약제가 쌓이며 지수가 2분기 연속 60이하를 기록했다. 자동차(74)업종도 미국·EU 중심 무역장벽 강화,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출여건이 악화되며 체감경기가 침체된 흐름을 보였다.

수출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87)업종의 경우 트럼프 집권 이후 대중국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무역정책 불확실성도 지속되며 전망이 악화됐다. 내수산업인 식음료(80)업종도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고환율 부담 누적으로 최근 제품가격 인상에 나서는 등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이승용 기자

“메모리 수급상황 확인, 투자전략 점검을”

>> 1면 ‘D램·낸드 가격 반등...’서 계속

삼성전자는 레거시 공정 라인 운영을 최적화하고 고사양·고용량 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단 공정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단했던 펄스 캠퍼스 투자도 연내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약 5조3000억원을 투입한 청주 M15X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뜨는 등 신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

이다. 김정우 SK하이닉스 부사장은 “M15X 건설 등 인프라 투자는 신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다만, 가격 상승의 ‘지속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과 무역 이슈 등 외부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시장 흐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혜민 기자 hyem@

마트·슈퍼, 원가절감 중심 전략 재구축

>> 1면 ‘5년만에 돌아오는...’서 계속

마트·슈퍼 사업부의 경우, 상품 경쟁력 강화, 구매 원가 절감, 신선식품 품질을 혁신해 국내 사업은 효율화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은 확장을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재구축한다. 이외에도 마트 신규 그로서리 애플리케이션 제타(ZETTA) 출시와 더불어, 오는 2026년 부산에 오픈할 플플먼트센터(CFC) 1호를 계획대로 추진한다.

e커머스 사업부는 패션·뷰티 카테고리 중심으로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

외에도 롯데타운을 비롯한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활용해 매출 성장을 도모하고, 고정비 및 조직 효율화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구상이다.

김부회장은 “2025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되어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롯데쇼핑은 고객의 첫 번째 쇼핑목적지가 되기 위해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발굴을 향한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